

2021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생명사랑 운동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MS 회원 강금화 강남정 강동건 강민주 강수연 강수영 강순자 강안나 강정희 강종두 강준민 강지선 강철희 강현숙 고경남 고경춘 고선미 고성연 고성희 고옥이 고정숙 고현준 곽경자 곽미란 곽승현 구인순 권경숙 권규철 권기웅 권수미 권여정 권영균 권용운 권현명 김갑훈 김 경 김경숙 김경자 김경희 김광명 김규자 김나연 김대원 김두리 김명성 김명승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숙 김미순 김미정 김미현 김미희 김민수 김민희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천 김병학 김보현 김복순 김상범 김상지 김석우 김선미 김선일 김선자 김성남 김성숙 김성연 김성예 김성현 김세연 김세영 김소연 김수빈 김순례 김순희 김시화 김신실 김신애 김애경 김애경 김연수 김영란 김영빈 김영수 김옥순 김옥자 김옥희 김용근 김용숙 김우란 김원순 김유근 김유영 김윤정 김윤지 김은경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인순 김인애 김일순 김재숙 김재원 김정순 김정윤 김정민 김정호 김종예 김종일 김주아 김주원 김주택 김주현 김중기 김중렬 김지선 김지영 김진아 김진호 김철규 김춘애 김총기 김태미 김태은 김태현 김태형 김해련 김행미 김현리 김현미 김현미 김현지 김형순 김형재 김형진 김형채 김형태 김혜경 김혜순 김혜정 김호석 김홍희 김홍혜 김홍주 김희정 나아란 나애란 나종하 남궁성 남궁신 남궁혜경 남윤숙 노미화 노진 모지영 모지영 모지영 문복희 문소연 문정은 문정인 문채은 문희경 문희숙 민경숙 민은식 박경선 박경희 박광애 박귀영 박금연 박기복 박민경 박민아 박병준 박상근 박서정 박선영 박성호 박성희 박수진 박순옥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수미 박수희 박양숙 박영희 박용준 박윤정 박윤희 박은희 박인숙 박점택 박정돈 박정수 박정숙 박종권 박종문 박종임 박주경 박지영 박지현 박진남 박진남 박진우 박진찬 박해동 박해숙 박현경 박희경 반정인 반준우 방기심 방지연 배민희 배서현 백수정 백창환 백형자 백희정 변창호 서강기업 서동철 서순이 서연주 서영민 서영애 서영호 서옥경 선창민 성경자 성곡숙 성화숙님 소경희 손경연 손미나 손상훈 손용선 손희덕 손희경 손희경 송계화 송명숙 송미숙 송인옥 송재물 송주영 수창기업 수근규 신남철 신남희 신동란 신동욱 신두호 신부경 신선우 신영란 신우섭 신재희 신정현 신중훈 신지혜 심수연 심재현 심하진 심형창 심홍순 안길준 안미숙 안복희 안인숙 안재홍 안정희 안지원 안진희 안춘미 양상국 양승례 양애숙 양은정 엄태용 연영진 오기백 오다혜 오수현 오우영 오종택 오진영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유우선 우지민 원용열 원유정 원정환 유미영 유보라 유애희 유윤석 유윤석 유진숙 유현선 유호심 유호경 윤문식 윤보현 윤선주 윤애숙 윤영균 윤영옥 윤인숙 윤정숙 윤정애 윤준구 윤지영 윤희도 이강욱 이경범 이경애 이경혜 이광수 이금수 이나연 이대성 이동욱 이동호 이두은 이명순 이명윤 이명재 이명화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민주 이백채 이병호 이복례 이봉운 이상희 이서연 이선순 이선아 이수연 이수자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승미 이승원 이신애 이여진 이영남 이영애 이영희 이예은 이우진 이원희 이윤령 이윤순 이은경 이은미 이은선 이은자 이은지 이은필 이은하 이은희 이의환 이인숙 이재기 이재열 이재은 이정민 이정선 이종례 이주기 이주영 이지옥 이지은 이 진 이진경 이진희 이진희 이찬희 이창열 이춘자 이태형 이해숙 이해원 이해원 이현숙 이현주 이현지 이혜경 이혜영 이홍근 이효정 이희재 이희진 임경란 임다은 임상원 임술아 임수현 임수희 임숙영 임용서 임은선 임은정 장길수 장상화 장선심 장승철 장영진 장인남 장정옥 장혜교 장희진 전경숙 전기철 전민자 전선윤 전성원 전성혜 전영철 전은국 전지연 전철자 전철호 전현민 전해림 전해숙 정경례 정경옥 정구상 정기현 정기훈 정만진 정미영 정미영 정병택 정상임 정선미 정선우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수빈 정수아 정신애 정여진 정영관 정영숙 정영선 정영환 정원태 정원재 정윤식 정은선 정의광 정현아 정현영 정형심 정혜정 정희백 조경오 조미경 조성환 조애진 조연호 조영근 조영숙 조윤성 조은경 조 정 조하영 조현경 조현미 조현주 조현희 주봉자 주수연 주은아 지순정 지에이에스디(주) 진상기 진의연 진재수 진태을 차태수 최경숙 최난경 최미선 최미점 최상영 최상욱 최선영 최숙정 최영임 최옥명 최유진 최은정 최은주 최자현 최정열 최종순 최준식 최지현 최지현 최진옥 최해욱 최해월 최향숙 풍명이어도서관 하미화 하연화 하영리 한금식 한대현 한명규 한명선 한명숙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상아 한선희 한송이 한수아 한숙원 한정수 함윤수 함윤희 허공균 홍기표 홍성민 홍성진 홍우정 홍윤옥 홍윤주 홍인선 홍정민 홍정임 홍효기 황소영 황영은 황은영 황은영 황지애 황태성 황혜숙 황혜영 황혜영 황화선

평생 회원 김승옥 김은찬 김재건 박상호 박연수 장인경 전가는 황혜영 **일반 후원** 고양YWCA이사회 순복음원당교회 승리교회 최인숙 한두레자치회
장항습지 지리사고자 돕기 특별후원 김나연 김용주 김현미 김혜경 남궁혜경 문정은 박귀영 박선영 박연희 박진남 박혜정 백희정 성경자 손경연 윤정애 이경애 이해경 임연자 전선윤 전지연 정수빈 진의연 최영임 최정애 황혜영

후원참여방법

CMS회원	월 만원이상	평생회원	100만원
일반회원	연3만원	특별회원	10만원이상
어린이회원	연5천원	Y틴회원	연5천원
물품후원	후원해 주시면 작은물품도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293-01-0002-640 (예금주: 고양YWCA)			

회비 사용처

당신이 후원한 회비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안전과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에 쓰입니다.
- 여성노동자 노동상담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쓰입니다.
- 노년세대들을 위해 디지털정보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활동과 정책제안에 쓰입니다.
- 청소년리더십개발 '주말대안학교 카다리학교 운영'에 쓰입니다
- 진로지도 프로그램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사업에 쓰입니다.
- 지역주민들의 에너지전환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쓰입니다.

회원가입 문의 : 031-919-4040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고양 YWCA



Goyang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나비를 품은 능소화

여름햇살이 뜨겁지만 태양빛을 닮은 꽃이 피어나니 그래도 여름이 고맙습니다. 나무로 기어올라 마치 나무가 더울까봐 커튼처럼 드리워지며 덮어버린 능소화. 능소화는 꽃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풍성한 마음이 듭니다. 꽃은 씨앗을 남기기 위한 생명의 장치입니다. 암술과 수술이 있어 수정이 되면 씨방에 씨앗이 맺히지요.

수정이 된 꽃들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땅에 똑똑 떨어집니다.
 아까운 마음에 능소화를 집어 들어 꽃 속을 들여다 보니 세상에! 꽃 속에 나비가 두 마리 들어 있네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능소화만의 수술이 나비모양으로 있네요.

씨앗을 남기는 일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해내다니 꽃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꽃을 닮아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최향숙 고양YWCA 위원

CONTENTS

- 기획기사**
- 기후위기와 여성 - 생태 슬픔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한국YWCA 탈핵비상선언

- 활동보고**
- 세계 환경의 날 'Y-에코데이 장터'
 - 금정굴 민간인 학살의 현장 돌아보다
 -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청소년 주말대안학교 '우리는 그린메이커스' 플로깅
 - 플라스틱 어택 '과대포장·묶음포장 NO'

- 활동계획**
- 가을 나눔바자회
 - 고양기후시민회의

YWCA NEWS

발 행 | 고양 YWCA
 발 행 인 | 윤정애
 편 집 인 | 이경애
 홍보출판 | 윤선영, 윤정애, 정수빈,
 위 원 회 | 최향숙, 함윤희
 편 집 | 남궁혜경, 박선영
 발 행 처 | 고양YWCA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F
 전 화 | 031) 919-4040
 팩 스 | 031) 913-4042
 퍼 낸 곳 | 나래기획 031)968-7450



기후위기와 여성

생태 슬픔(Eco Grief)은 우리에게 무얼 말하는가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우리 모두의 집이 불타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 모두의 집이 불타고 있다”고 절박하게 외친 그대로 지금 이 지구의 곳곳이 불타고 있다.

북아메리카는 물론이고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은 엄청난 규모의 산불로 타오른다. 그리고 그 기후위기가 몰고온 재앙의 불은 ‘동토의 땅’이라는 자동 수식어가 붙은 시베리아마저 다 태울 듯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 이 끔찍한 화재들로 인해 지구상에서 배출된 탄소량이 3억4천3백만 톤이나 된다고 한다. 물론 어마어마하다 해도 그 규모를 측량할 수가 없다. 아무튼 관측 이래 산불로 인한 최고의 배출량이다. 그뿐 아니라 탄소보다도 86배나 많은 온실효과를 가져오며 기후변화의 뇌관이라 부르는 ‘메탄가스’가 그린란드와 시베리아 등 영구동토층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견잡을 수 없이 배출되고 있다.

지구 곳곳이 불타는 반면, 또 지구 여러 곳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태풍과 홍수가 밀어닥쳐 평범한 이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재난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독일이나 일본도 그 엄청난 재앙에서 비껴가지 못했다.

산불로 숲들이, 마을이, 자신의 집이 타들어 가는 것을 보고 절규하는 그리스의 노인을 보라. 폭풍과 해일, 해수면 상승으로 오랫동안 살던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정처없는 피난길을 떠나는 방글라데시의 여인들을 보라. 홍수에 떠 내려가며 살려달라 절규하는 수많은 중국의 민중들을 보라.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재앙이 우리를 비껴간 것에 우리는 얼마나 안도할 수 있나?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자위할 수 있을까?

생태 슬픔과 기후 우울

지구라는 우리 모두의 집이 불타고 있는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과 이윤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 압도적인 위기상황에 대해 심각한 무력감만 느끼고 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가 몰고 온 심각한 위협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스크 줄을 가위로 자른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이용하지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다. 얼마 전 기후위기의 ‘최후 방어선’이라 했던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10년 남짓 앞당겨질지 모른다는 더욱 암담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 7월 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는,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2018년에 발표된 ‘제5차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2030~2052년보다 훨씬 더 앞당겨졌다고 말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코로나 상황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위기의 양상은 도처에서 재앙급으로 전개되는 것을 마주하며 사람들은 깊은 우울과 절망을 느낀다. 청년들은 지독한 경쟁에 내몰려 취업을 위해 분투한다 해도 자신들에게 내일이 있을까 회의하며 자신들이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세대들일지도 모른다고 비탄한다. 얼어붙은 땅이 녹아버리는 바람에 사냥으로 생계를 잇던 전통적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이누이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존재를 뿌리 뽑힌 채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가야 한다. 땅과 동물과 짐승들을 산불로 몽땅 잃은 터키의 농부들도 기후난민이 되어 살 곳을 찾아 전전해야 한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생물들의 죽음과 함께 조

상 대대로 삶을 영위해온 터전을 잃은 사람들, 어렵게 일구어 삶을 송두리째 박탈당한 사람들, 그들의 깊은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후재앙과 생태파괴를 목도하는 이들에게도 이 슬픔은 언젠가 자신에게도 닥칠 예감과 함께 고스란히 전해진다. 심리학자들은 기후재앙 시대의 수많은 죽음과 파괴를 겪고 그 현장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상실감, 분노, 만성적 두려움 등의 감정들을 ‘생태 슬픔(Ecological Grief)’, 혹은 ‘기후 슬픔(Climate Grief)’, ‘기후 우울(Climate Depression)’이라고 명명한다. 그 슬픔의 현장은 단지 막대한 재앙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탄저병으로 짓물러진 고추를 눈물로 수확하는 농부들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에어컨 전원버튼을 누르는 시민들도, 기약없는 코로나 사태로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 도시 자영업자들도 모두 ‘생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일상을 살아간다.



생태 슬픔을 넘어 새로운 전환의 길로

하지만 이런 생태 슬픔은 재앙을 목도할 때보다도 오히려 그 재앙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저 남의 일로만 여기는 무관심 속에서 더욱 증폭된다. 위기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경제성장’의 판타지를 확산하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기후위기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만 바라보는 재난자본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질에 편승하여 당장의 편리함만을 쫓는 사람들.

생태 슬픔은 우리들에게 무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절망과 무력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생태 슬픔이라는 인류의 집단적 심리는 당장 시급히 실낱과도 같은 희망을 찾아 함께 길을 나서라는 의미일 것이다.

실화를 기반으로 1993년에 만들어진 재난 영화 <얼라이브>에서 안데스 산맥의 눈덮인 산에 추락한 럭비팀 대원들은 70여 일이나 지난 후 기적적으로 구출된다. 이런 믿을 수 없는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희망’을 찾아 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막막한 눈 덮인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는 반드시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펼쳐지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끈질기게 찾아나선 한 사람 때문이었다. 슬픔과 절망에 압도당하여 길 찾는 그를 몇몇 동료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할 때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사력을 다해 길을 찾아 나선 그가 마침내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생태적 슬픔은 우리를 압도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새로운 전환의 길로도 이끌 수 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며 행동에 나설 때 말이다. 레베카 솔닛은 그의 책 <어둠 속의 희망>에서 이렇게 썼다. “희망하는 것은 도박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미래에, 당신의 욕망에, 열린 가슴과 불확실성이 암울함과 안정보다 나올 가능성에 거는 것이다. 희망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산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기에, 희망하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다.” 그렇다. 생태 슬픔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위험에 나서게 한다.

사진 출처 : 산불로 비통해하는 그리스 여성, <가디언>지, 2020. 8.10

기사 출처 : 한국YWCA 연합회 <한국YWCA> 7+8월호

“탈핵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기후위기의 대안은 재생에너지로!”



올해는 후쿠시마 3.11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한 지 4년이 되는 해이다. 핵발전소는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으며 동시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핵 사고로 인한 피해와 고통의 현장들을 수없이 보고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핵 발전을 기후 위기 대안으로 호도하는 세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핵 산업의 부흥을 피하고 탈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권과 핵산업계를 규탄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탈핵 에너지 전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상 선언을 선포한다.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문제는 인류의 이기적 소비 행태, 개발과 성장의 논리로 인한 결과이다. 지난 8월초 발간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명백하게 완전히 인간의 영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핵 발전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눈물을 담보로 하는 에너지원이다. 그럼에도 불안하고, 위험성 높은 핵발전소 건설에는 위험 비용이 지속적으로 더해지면서 이전보다 더한 고비용 산업이 되고 있다. 국내의 높은 원전 밀집도와 이상 기후라는 불안정한 환경의 영향 하에서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핵 사고의 완벽한 차단은 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고준위 핵폐기물은 여전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단 한 번의 핵 사고만으로도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지구는 인간만의 서식지도 아니고 지금 세대만의 소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눈앞에 놓인 편익에 따른 착취적인 구조를 단절하고 핵 발전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선택의 길이다.

최근 핵산업계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크기가 작아졌다고 건설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큰 원전을 작게 분산한다고 하여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개발과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기

후 위기 대응의 효과 역시 검증된 바 없다.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 원문에는 핵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1.5도 억제 경로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는 방식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후 선진국들은 탈핵·재생 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산업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개발로 기존 에너지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들은 납품 기업들에게 재생 에너지로 만든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후진국 한국이 핵 발전에 계속 집착한다면 국내 산업은 머지않아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핵 발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산적이고 시민 지배적인 재생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는 탈핵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탈핵은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탈핵은 모두의 살 길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하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정지되었을 뿐이며, 핵 발전 옹호 세력의 반동으로 가짜 뉴스가 범람하였고 이후 탈핵의 길은 시작되지 못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한국YWCA는 52개 회원YWCA와 더불어 탈핵 비상 선언을 선포하며, 모든 생명이 핵 없는 안전한 세상,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핵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에 맞서서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촉구하고 행동할 것이다.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 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후위기를 핵 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치명적 핵 사고, 답 없는 핵폐기물, 핵발전소 폐쇄하라!
-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라!

2021년 8월 23일
한국YWCA연합회

세계 환경의 날 'Y-에코데이 장터'



고양YWCA는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6월 4일(금) 일산서구 강선공원에서 'Y-에코데이장터'를 열었다. 플라스틱 프리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여 생활 속에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OX퀴즈, 생활속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방법 소개, 플라스틱사용을 줄이는 나만의 외출가방전시, 플라스틱없는 대안생활용품 등을 전시하였다. 또한 아나바다물품을 모아 판매하고,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텀블러를 기증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OX퀴즈로 알아본 분리배출방법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정굴 민간인 학살의 현장 돌아보다



고양 황룡산에 위치한 한국전쟁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는 '금정굴'을 6월 22일(화) 고양YWCA 평화활동가들이 함께 방문하였다. 금정굴은 6.25전쟁 당시 200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던 장소이다. 현장에서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의 이현옥 사무국장을 통해 6.25전쟁 당시 민간인의 희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1993년 금정굴에서 제1회 위령제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과 금정굴 발굴이후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아픈 역사 현장인 금정굴이 잘 보전되어 이제는 치유와 회복, 상생의 장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8월 22일(일) 에너지의 날 지구를 식히는 고양공동행동은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소등행사를 진행하였다. 2003년 최대전력소비를 계기로 2004년 8월 22일부터 시작한 에너지의 날이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이번 소등행사는 오후 9시에서 30분간의 소등을 통한 에너지 절전 캠페인으로 회원들과 고양시 20여개 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가 속출하는 가운데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상기후의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는 이때에 잠시 일상을 멈추고 소등행사 인증샷 참여 회원은 향후 지속적인 기후위기 공동행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청소년 주말대안학교 - 우리는 '그린메이커스' 일산호수공원으로 플로깅을 다녀오다



플로깅. 근래에 여러 매체에서 자주 나오는 이 용어는 이삭을 줍는다는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단어인 jogging이 합쳐진 단어이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위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긴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유난히 화창했던 6월 19일(토) 키다리학교 참가자들이 첫 번째 플로깅을 나섰다. 코스는 고양YWCA에서 일산호수공원까지로 길지 않은 구간이었지만 보물찾기하듯 숨겨진 쓰레기를 찾고, 줍느라 이동하는 시간이 짧지 않았다.

플로깅을 나가기 전 주부터 키다리학교는 박스로 멋진 피켓을 만들고 개별 역할을 정했다. 활동 구간과 시간을 지키는 타임키퍼, 사람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내용을 알리는 알림이, 플로깅하는 조원들을 챙기는 세심이, 그리고 수거한 쓰레기의 종류와 활동을 기록하는 기록이. 조별로 플로깅 시 유의할 점과 규칙을 만들며 플로깅의 처음과 끝까지 키다리학교 참가자들이 직접 준비했다.

참가자들이 플로깅 날 처음으로 수거한 쓰레기는 담배꽂초였다. 그리고 가장 많이 수거한 쓰레기도 담배꽂초였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내용물이 남아있는 커피음료부터 과자봉지, 맥주캔 등 다양했는데 식음료 쓰레기가 대부분이었다. 수거한 쓰레기는 청소년보다 성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비율이 높았는데 어른들이 버린 쓰레기를 청소년 참가자들이 정리하는 모습에 많은 생각과 감정이 들었다.

키다리학교가 2시간 동안 수거한 쓰레기는 20L 5봉지였고 고양YWCA로 가지고 와 비우고, 행구고, 라벨을 제거하여 분리배출하였다. 활동에 참여한 키다리학교 참가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많이 주워 뿌듯하고 쓰레기 문제를 눈으로 보게 되어 뜻 깊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플라스틱 어택

‘과대포장·묶음포장 NO!’

‘세계 63개국의 포장용 플라스틱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한국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소비량 61.97kg으로 벨기에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편리함을 이유로,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을 더럽히고 강과 바다를 질식시키고 있다. 강과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 방출은 결국 우리의 먹거리로 되돌아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형마트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분리배출 등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플라스틱 저감은 개인의 노력을 넘어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고양YWCA는 6월 24일(목) 주엽 롯데마트에서 시민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저감운동인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였다.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은 2018년 영국의 한 마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기업의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 실태를 고발하는 한편 상품 유통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 직접행동이다.

시민들은 과대포장, 묶음포장을 반대하는 피켓을 카트에 부착하고 장을 본 후 발생했던 모든 쓰레기를 뜯어 버리고 개인이 가져온 용기들에 담은 후 기업의 포장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업체에 요구하였다.

또한 과대포장 및 묶음포장한 기업들의 제품을 사진찍은 후 해당업체에 메일을 보내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없이 물품을 살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제21회 고양YWCA 나눔바자회



2021년 고양YWCA 가을맞이 나눔바자회를 진행한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통해 서로 돕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쌓고 질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바자회 판매수익금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한 주

거지원 시설 입소자 난방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일시: 2021. 10. 29(금) 오전10시~오후4시
- 장소: 강선공원(예정)
- 품목: 폼클렌징, 각종 밑반찬, 만능간장, 참기름·들기름 김치류(파김치, 알타리김치), 여성의류, 신발 밤·대추, 젓갈류(홍성 새우젓·멸치젓), EM제품(비누 외)등
- ※ 코로나 상황에 따라 행사와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양기후시민회의

산불,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현상을 일상적으로 목도하고 있다.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평균온도 1.5℃내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데, 최근 발표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삶을 산다면 1.5℃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이 2021-2040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018년 발표한 IPCC 1.5℃ 특별보고서보다 무려 10년이 앞당겨졌다.(2018년 보고서 2030~2052년) 인류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긴급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부여받았다.

‘거의 모든 것의 전환’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에 고양YWCA는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 모임인 ‘고양기후시민회의’를 구성하려 한다.

가칭 ‘고양기후시민회의’

- 활동내용 : ① 고양시 기후위기대응정책 모니터링(정책모니터링-고양시 온실가스감축계획, 에너지정책 등, 자원순환, 수송 및 건물분야 온실가스감축정책, 녹지정책, 의회모니터링, 기후위기와 젠더이슈 등)
- ② 연대 단위별 타운 홀 미팅 진행
- ③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시민정책 제안

고양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문의 고양YWCA 031-919-4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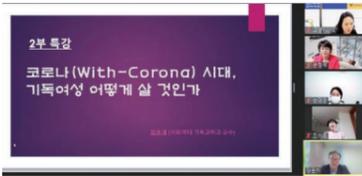
일본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온라인캠페인

고양YWCA는 지난 5월 31일(월)~6월 2일(수) 일본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함께 행동한 국제행동캠페인이었으며, 방사성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방류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캠페인이다.

장항습지 지뢰사고 지원금 전달

지난 6월 4일(금) 장항습지에서 자원봉사로 환경정화를 위해 활동중이었던 고양시민 김철기님(고양파주민족문제연구 전 지부장)이 지뢰폭발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절단 후 봉합수술을 한 상태지만 과사가 발생하여 무릎 아래 5cm까지 절단하는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고양YWCA는 지역연대후원금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김철기님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

이사위원실무활동가 연구모임 '코로나시대, 기독교 여성 어떻게 살 것인가'



고양YWCA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 대상으로 6월 8일(화) 활동가 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1부 윤정애 회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2부에는 장운재 목사(이화여대 기독교학과)의 코로나(With-Corona) 시대, 기독교 여성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뿐만 아니라 생태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기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는 물론 현재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독교 여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두고 있는 YWCA 본질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회원확대운동 결과보고회



지난 6월 14일(월) 이사·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확대운동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였다. "당신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주제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올해는 평생회원 집중 확보와 이사 위원의 CMS화를 운동방향으로 잡고 활동하였다. YWCA회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며 운동에 동참할 회원을 발굴하는데 이사·위원·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애써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 모집된 회원의 회비는 청소년운동과 성평등운동, 탈핵생명운동, 평화통일운동에 사용한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정전협정 68년, 한국전쟁 실패에서 마침표로



고양YWCA는 7월 27일(화) 한반도 종전협정 68주년이자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1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실패에서 마침표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국 YWCA와 함께 온라인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은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시작한 운동으로 전세계 1억명의 서명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각국 정부와 유엔을 움직여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로 벌이는 캠페인이다.

제 10회 고양여성영화제 작년이어 내년으로 또다시 연기

고양YWCA가 양성평등주간인 9월 1일(수)~7일(화)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던 제 10회 고양여성영화제가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이어 다시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2022년 제10회 고양여성영화제 때는 더욱 내실있는 준비로 시민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고양시 여성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가사노동자, 생활지원사 등 중장년층 여성노동자가 주대상인 집단의 신청을 받아 뇌심혈관 위험인자를 검사하고, 스트레스 척도 검사를 병행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등 직장 내 고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노무상담 및 심리상담을 연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사랑상담소] '언택트시대 정복기'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는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23(수)일부터 10월 13일(수)까지 '언택트시대 정복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ZOOM활용법, 미리캔버스 활용법, SNS마케팅 기법 등과 같은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대면 시대에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21 드라마 치유 집단상담'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6월 18일(금), 25일(금)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1 드라마 치유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며 영유아를 가정보육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 육아와 가정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많다. 이에 스스로를 돌보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드라마 치유 집단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총 4회기동안 38명의 참여자가 함께했다. 가족세우기, 소시오 드라마, 비블리오 드라마, 플레이백 시어터 드라마의 주제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자신과 상대의 감정을 찾고 수용하는 방법, 자신의 소통방법을 바라보기, 상처에 대한 새로운 감정 경험하기의 활동을 진행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 '지친 부모를 위한 구(口), 심(心), 체(體) 힐링프로그램'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지원으로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10월 5일(화)부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사 스트레스로 잃어버린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부모교육으로 스트레스 관리교육, 컬러테라피를 통한 맘 챙기기, 집에서 즐기는 건강한 홈트 등 총 3회기로 구성되어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자녀 연령에 따라(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세분화하여 선착순 모집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신청기간에 홈페이지(<https://goyangfc.familynet.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Y가족이야기

- | | |
|--------------|--------------------|
|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8.1 임민아 퇴사 | - 6.03 한희정 육아휴직 복직 |
| - 8.9 김알음 입사 | - 7.22 황현정 입사 |
| | - 7.22 김윤정 퇴사 |
| | - 7.31 박민경 퇴사 |
| | - 8.01 김예지 입사 |